



제목	Forgotten Empire: The World of Ancient Persia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발행일	2005. 11. 7.
저자	John Curtis, Nigel Tallis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272
ISBN 또는 ISSN	978-0520247314

내용 요약

고대 페르시아는 고대 그리스보다 우월한 수준의 문화를 창출하고, 고대 근동지역에서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를 능가하는 가장 방대하고 강한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기원전 550년부터 330년 동안 키루스, 다리우스, 크세르크세스와 같은 명망 있는 왕들이 통치했던 페르시아는 다양한 민족들과 문화로 구성된 2백만 평방마일 규모의 제국을 다스림에 있어서 현대 이란의 남서부에 위치한 고대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와 파사르가대, 수사로부터 통제하였다.

이 책은 거대한 궁전 건축, 정교한 세공품, 잘 정비된 행정시스템 등을 다룸으로써 당시 부유하고 화려했던 페르시아 사회를 통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궁중생활의 거점이 되는 궁전 건축은 수사와 페르세폴리스에 발굴된 중요 유물들을 선별 및 카테고리 별로 묶어 일러스트와 배경지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금 장신구, 사치스러운 식기류, 종교, 매장 풍습, 운송수단, 상업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페르시아-그리스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고대 페르시아를 재해석하고 있다. 페르시아는 초기 근동지역의 문화와 후기 지중해의 고전 세계 사이의 가교역할을 했고, 정치·군사·경제·예술 분야에서 그리스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헤로도투스와 같은 역사가들에 의해 페르시아에 대한 평가가 폄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자는 위대한 고대 제국의 잊혀진 위업과 소외된 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